

<2019. 8. 17. 시행 국가직 7급 공무원 문항 분석>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선사시대	1, 2			
고대	19	3		9
중세	14			5, 7, 10
근세	15			8
근대동기	4			16
근대개항기	11	17		
일제강점기	6, 12, 18			
현대	13, 20			

< 총 평 >

2019년 국가직 7급 한국사는 작년보다 조금 더 쉽게 출제되었다. 문제 유형으로는 단순문답형이 6문제, 자료제시형이 14문제(원문사료 10문제, 응용자료제시 4문제) 출제 되었는데 특이하게도 순서나열형은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

시대사로는 전근대사에서 13문제, 근현대사에서 7문제 출제되었다. 전근대사에서는 선사시대가 2문제, 고대사가 3문제, 중세사에서 4문제, 근세사에서 2문제, 근대동기에서 2문제 출제되었다. 근현대사에서는 근대 2문제, 일제 3문제, 현대 2문제가 출제되어 전반적으로 고르게 출제되었다.

분류사로는 정치사가 12문제, 문화사가 6문제 출제되었으며, 경제·사회사에서는 경제사가 2문제 출제되었다.

이번 시험에서 고난도 문항은 고려 고종 시기에 일어난 사실에 대해 물어본 10번 문제가 있었고,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는 향교에 대해 자세하게 물어본 8번 문제, 발해 무왕에 대해 물어본 19번 문제, 건준위에 대해 물어본 20번 문제 등이 있다.

<출제 문항 유형 분석>



< 출제 문항 주제 분석 >

문항 번호	출제 분류	출제 주제	난이도
1	선사 시대	신석기 시대	하
2	선사 시대	동예	하
3	고대 경제	민정 문서	하
4	근대기 정치	정조	중
5	중세 문화	이규보의 역사의식	중
6	일제 정치	대한민국 건국강령	중
7	중세 문화	안향	중
8	근세 문화	향교	중상
9	고대 문화	무령왕릉과 정효공주묘	중
10	중세 문화	고려 고종	상
11	근대 정치	미국과 러시아	중
12	일제 정치	1910년대 일제 통치	중
13	현대 정치	남북 기본 합의서	중하
14	중세 정치	고려 후기 권문세족	중
15	근세 정치	명종	중하
16	근대기 문화	양명학	중
17	근대 경제	화폐 정리 사업	중
18	일제 정치	1930년대 무장 독립 투쟁	중
19	고대 정치	발해 무왕	중상
20	현대 정치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중상

< 고난도 문항 분석 >

문항 번호	출제 주제	특징
10번	고종	고려 고종의 즉위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물어본 문제로, 무신집권기는 보통 무인 집정자를 중심으로 시대 구분을 하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헷갈렸을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여기에 선지까지 낯선 선지와 시대 구분을 잘 하지 않는 선지들을 섞어서 배치하여 난이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 변별력 있는 문항 분석 >

문항 번호	출제 주제	특징
8번	향교	‘다시찾는 우리역사’에 나오는 향교 관련 설명을 선지로 배치하여 출제한 문제이다. 내용이 다소 깊게 출제되어 꼼꼼히 공부하지 않았다면 함정에 빠지기 쉬웠을 것이다.
19번	발해 무왕	사료에서 발해 무왕과 문왕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했다면 틀리기 쉬웠을 것으로 보인다.
20번	건준위	대한민국 건국 수립 과정은 출제를 1위이지만, 건준위와 관련된 사료까지 꼼꼼히 챙겨보지 않았다면 자료가 설명하는 단체를 좌우합작위원회로 착각하기 쉬웠을 것으로 보인다.

정답(2차형 기준)

- | | | | | |
|-------|-------|-------|-------|-------|
| 1. ② | 2. ③ | 3. ③ | 4. ④ | 5. ③ |
| 6. ① | 7. ④ | 8. ③ | 9. ② | 10. ① |
| 11. ① | 12. ② | 13. ③ | 14. ② | 15. ① |
| 16. ④ | 17. ④ | 18. ② | 19. ① | 20. ① |

1. 다음 토기가 사용된 시기의 생활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토기는 그릇의 표면에 점토 띠를 덧붙여 각종 문양 효과를 내었으며, 바닥은 평저 또는 원저로 이루어져 있다. 대표적인 예로 부산 동삼동, 울주 신암리, 양양 오산리 유적 등에서 출토된 것이 있다.

- ① 움집에서 주거 생활을 하였다.
- ② 검은 간 토기를 함께 사용하였다.
- ③ 가락바퀴를 이용해 옷을 만들었다.
- ④ 농경이 시작되어 조와 기장 등을 경작하였다.

1. 신석기 시대

정답 : ②

제시된 자료는 신석기 시대의 토기인 덧무늬 토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덧무늬 토기는 그릇의 표면에 띠 모양의 흙을 덧붙여 각종 무늬를 낸 토기로,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인 부산 동삼동·울주 신암리·양양 오산리 유적지 등에서 출토되고 있다. ② 검은 간 토기는 초기 철기 시대에 사용된 토기이다.

오답분석 : ① 신석기 시대의 주거 생활에 대한 설명이다. ③ 신석기 시대에는 가락바퀴를 이용하여 옷을 만들기도 하였다. ④ 신석기 시대에 들어와 농경이 시작되어, 조·기장 등 잡곡류를 경작하였다.

(2019년 해법국사 1권, 신석기 문화, 30쪽 / 신석기 시대의 생활, 31쪽 / 철기의 사용, 36쪽)

(2019년 필기노트, 신석기 시대의 생활, 9쪽 / 청동기와 철기의 보급, 10쪽)

2. ㉠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에는 대군장이 없고, 후(侯)·읍군·삼로 등이 있어서 하호를 통치하였다. ㉠의 풍습은 산천을 중요시하여 산과 하천마다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 ① 영고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 ② 민며느리제라는 혼인 풍속이 있었다.
- ③ 단궁, 과하마, 반어피가 많이 생산되었다.
- ④ 중대한 범죄자는 제가(諸加) 회의를 통해 처벌하였다.

2. 여러 나라의 성장(동예)

정답 : ③

제시된 자료는 동예의 정치 체제와 동예의 풍습인 책화와 관련된 내용이다. 따라서 ㉠ 나라는 동예이다. ③ 동예는 단궁이라는 활과 과하마, 반어피, 문표(표범 가죽) 등의 특산물이 있었다.

오답분석 : ① 부여에 대한 설명이다. ② 옥저에 대한 설명이다. ④ 초기 고구려에서는 중대한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회의를 통하여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을 노비로 삼았다.

(2019년 해법국사 1권, 부여, 51쪽 / 초기 고구려, 53쪽 / 옥저와 동예, 55~56쪽)

(2019년 필기노트, 여러나라의 성장, 13~15쪽)

3. 밑줄 친 '이 문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서는 서원경 부근 4개 촌락의 상황을 전하고 있으며, 호수와 전답의 면적, 가축과 과실나무의 수 등이 기록되어 있다.

- ① 건원이라는 연호가 기록되어 있다.
- ② 전시과와 녹봉 제도의 운영 양상이 나타나 있다.
- ③ 호(戶)는 인정(人丁)의 다소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었다.
- ④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목판 인쇄물로 평가받고 있다.

3. 민정문서

정답 : ③

제시된 자료의 밑줄 친 '이 문서'는 신라 민정문서이다. ③ 신라 민정문서에서 호(戶)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 상상호(上上戶)에서 하하호(下下戶)까지 9등급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다.

오답분석 : ① 민정문서는 통일 이후에 작성되었으며, 연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건원이라는 연호는 그 이전인 6세기 법흥왕 때 사용되었다(민정문서의 작성 시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경덕왕설·현덕왕설·효소왕설 등이 있다). ② 전시과는 고려 시대의 토지제도이다. ④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목판 인쇄물은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다.

(2019년 해법국사 1권, 수취 제도의 정비, 128쪽 / 기술학의 발달, 166쪽 / 전시과 제도와 토지 소유, 248쪽)

(2019년 필기노트, 민정문서, 28쪽)

4. 다음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밑줄 친 ㉠과 빈 칸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S#3

즉위한 지 얼마 안 되어 아직 상복 차림인 ㉠국왕, 대신과 여러 관원을 부르다.

국 왕: 우리나라의 역대 임금님들이 지은 글은 제대로 봉안할 곳이 없었다. 그리하여 창덕궁 후원에 ㉡을(를) 세우고 임금님들의 글을 봉안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를 담당하는 관원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신하들: 이 일은 문치의 교화를 진작시킬 것입니다. 마땅히 관원을 두셔야 할 줄로 아뢰옵니다.

- ① ㉠-신경준에게 명하여 『동국여지도』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 ② ㉠-내수사와 궁방 및 각급 관청에 속한 관노비의 장적을 소각하도록 하였다.
- ③ ㉡-백성의 억울함을 왕에게 알릴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였다.
- ④ ㉡-조정 관료 중에서 재능 있는 문신들을 선발하여 이곳에서 재교육하였다.

4. 정조

정답 : ④

제시된 자료의 밑줄 친 ㉠은 정조이며, ㉡에 들어갈 기구는 규장각이다. 정조는 창덕궁 후원에 규장각을 두었는데, 본래 왕실 도서관으로 설치되었으나 정조는 젊은 학자들을 학사(學士)로 임용하여 문한(文翰), 비서실, 과거 시험 주관 등 여러 기능을 부여하였다. ④ 정조는 37세 이하의 당하관 관리 중에서 능력 있고 자질이 뛰어난 자를 선발하여 일정 기간 동안 규장각에서 공부하도록 하는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였다.

오답분석 : ① 동국여지도는 영조 때 편찬된 지도이다. ② 순조 때의 공노비 해방에 대한 설명이다. 순조는 내수사(왕실의 재정을 관리한 관청)와 각 궁궐, 그리고 중앙의 관청에 소속된 노비안(奴婢案, 공노비의 호적)을 소각하여 공노비 6만 6천여 명을 해방시켰다. ③ 신문고 등에 대한 설명이다.
(2019년 해법국사 1권, 탕평 정치의 전개, 462쪽 / 노비 신분의 변화, 504쪽)
(2019년 필기노트, 영조의 정책, 97쪽 / 정조의 정책, 98쪽 / 세도정치의 전개, 99쪽)

5. 이규보의 역사의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불교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고대사 체계를 세웠다.
- ②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하여 기전체 사서를 편찬하였다.
- ③ 고구려 계승 의식을 통해 고려의 기원을 신성시하고자 하였다.
- ④ 우리 역사를 중국과 대등하게 파악하며 단군을 민족 시조로 인식하였다.

5. 이규보의 역사의식

정답 : ③

③ 고려의 무신 집권기에 활동한 문신 이규보는 「동명왕편」을 저술하였다. 그는 동명왕편에서 고구려 시조 동명왕의 건국 신화를 다시 해석하여 동명왕이야말로 천손의 후예로서 성인(聖人)이자 영웅이라고 보고, 그의 건국 과정을 시로 재구성하였다. 이는 고구려의 계승 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고려 역시 천손의 후예인 고구려의 전통을 계승했다는 자부심을 표현한 것이다.

오답분석 : ① 일연이 저술한 「삼국유사」 등에 대한 설명이다. ② 고려 인종 때 김부식이 저술한 「삼국사기」 등에 대한 설명이다. ④ 충렬왕 때 이승휴가 저술한 「제왕운기」에 반영된 역사의식에 대한 설명이다.
(2019년 해법국사 1권, 역사서의 편찬, 292~294쪽)
(2019년 필기노트, 고려의 역사서, 61쪽)

6.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국 23년에 채택한 ㉠에는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며, 무상 교육을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략)… 현재 우리의 급무는 연합군과 같이 일본을 패배시키고 다른 추축국을 물리치는 데에 있다. 우리는 독립과 우리가 원하는 정부, 국가를 원한다. 이를 위해 ㉠의 정신을 바탕으로 독립된 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한다.
- 『신한민보』 -

- ① 보통선거 실시를 주장하였다.
- ② 조선 건국 동맹에서 발표하였다.
- ③ 파괴와 폭동 등에 의한 민중의 직접 혁명을 강조하였다.
- ④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다.

6. 대한민국 건국강령

정답 : ①

제시된 자료의 ㉠은 민국 23년(=1941)에 채택된 대한민국 건국강령이다. ① 대한민국 건국 강령은 조소앙이 제창한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삼았다. 건국 강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헌법의 실시, 경자 유전의 토지 제도, 보통 선거의 실시, 의무 교육의 실시, 정치·경제·교육의 균등 실현 등이 있다.

오답분석 : ② 대한민국 건국 강령은 조선 건국 동맹이 아니라 임시정부에서 발표하였다. ③ 의열단이 행동 강령으로 채택한 신채호의 조선 혁명 선언에 대한 설명이다. ④ 1948년 4월 남북연석회의(남북 지도자 회의)에서 발표한 '진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 공동 성명(= 남북 협상 회의의 공동 성명)'에서는 남북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회의의 소집과 통일적 민주정부의 수립 등을 요구하였다.
(2019년 해법국사 2권, 의열단, 771쪽 / 해방 전후의 상황, 847쪽 / 단독 정부 수립 결정과 반대, 856쪽)
(2019년 필기노트, 광복 직전의 건국 준비 활동, 162쪽)

7. ㉠에 들어갈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은(은) 원에서 크게 성행하고 있었던 성리학을 국내에 소개하였으며, 중국 강남에 사람을 보내 공자와 제자들의 초상화 및 문묘에서 사용할 제기와 서적 등을 구해 오게 하였다.

- ① 최초의 성리학 입문서인 『학자지남도』를 편찬하였다.
- ② 충선왕이 세운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였다.
- ③ 원의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와 성균관을 중심으로 성리학을 확산시켰다.
- ④ 이 인물을 배향하기 위해 설립된 서원은 뒤에 조선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었다.

7. 안향

정답 : ④

제시된 자료의 ㉠에 들어갈 인물은 안향이다. 안향은 충렬왕 때 원나라에 가서 「주자전서」를 베껴와 성리학을 고려에 처음으로 소개한 인물이다. 또한 그는 김문정을 중국 강남(江南)으로 보낸 뒤, 공자와 제자들의 화상(초상화)·제기(祭器)·악기·육경(六經)·사서(史書) 등을 구해오도록 하였다. ④ 조선 중종 때 풍기군수 주세붕이 고려 말의 유학자 안향을 배향하기 위해 백운동 서원을 설립하였다. 이는 최초의 서원으로, 이후 명종 때 풍기군수로 부임한 이황이 왕에게 주청하여 소수서원이라는 편액을 하사받아 조선 최초의 사액서원이 되었다.

오답분석 : ① 「학자지남도」는 정도전이 편찬한 성리학 입문서이다. ② 이제현 등에 대한 설명이다. 안향은 충렬왕 재위기간인 1306년에 죽었다. ③ 이곡, 이색 등은 원나라에 가서 과거에 급제하고 돌아와 성리학을 더욱 확산시킨 인물들이다. 안향과는 관련 없는 내용이다.
(2019년 해법국사 1권, 유학의 발달, 290쪽 / 향약과 유교 윤리의 보급, 400쪽)
(2019년 필기노트, 고려 유학의 발달, 60쪽)

11. 다음은 『조선책략』의 유포에 반발하여 유생들이 올린 상소문이다. ㉠, ㉡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은) 우리가 본래 모르던 나라입니다. 쓸데없이 타인의 권유로 불려들었다가 만에 하나 그들이 우리의 허점을 보고 우리를 업신여겨 어려운 요구를 강요하면 장차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중략)… ㉡(은) 본래 우리와는 싫어하거나 미워할 처지에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중략)… 하물며 ㉢, ㉣ 그리고 일본은 모두 오랑캐입니다. 그들 사이에 누구는 후하게 대하고 누구는 박하게 대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 ① ㉠-청의 알선으로 조선과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였다.
② ㉠-임오군란 이후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을 강화하였다.
③ ㉡-천주교 박해에 항의하여 강화도를 침략하였다.
④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여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였다.

11. 근대 열강(미국과 러시아)

정답 : ①

자료에서 등장하는 ㉠은 미국, ㉡은 러시아이다. ① 미국과 조선은 청나라 이홍장의 알선으로 불평등 조약인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

오답분석 : ② 청나라에 대한 설명이다. ③ 천주교 박해에 항의하여 강화도를 침략한 나라는 프랑스이다. ④ 영국에 대한 설명이다.

(2019년 해법국사 2권, 서구 열강과의 조약 체결, 598~599 / 갑신정변 이후의 정세, 617쪽)

(2019년 필기노트, 개항과 불평등 조약 체결, 120쪽 / 갑신정변 이후의 정세, 124쪽)

12. 다음 법령이 시행되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은?

제1조 회사의 설립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략)…

제5조 회사가 본령이나 본령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과 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또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 조선 총독은 사업의 정지, 지점의 폐쇄 또는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① 경성 제국 대학이 설립되었다.
② 경찰법 처벌 규칙이 제정되었다.
③ 학교에서 조선어 사용이 금지되었다.
④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다.

12. 1910년대 일제 통치

정답 : ②

자료의 법령은 1910년에 제정된 회사령이다. 회사령은 1910년에 제정되어 1920년에 폐지되었다. ② 경찰법 처벌 규칙은 1912년에 제정되어 우리 민족의 일상 생활을 통제하였다.

오답분석 : ① 경성 제국 대학은 1924년에 설립되었다. ③ 학교에서 조선어 사용의 금지는 1943년에 제정된 4차 교육령 때 이루어졌다. ④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는 1923년에 이루어졌다.

(2019년 해법국사 2권, 식민 통치 체제의 구축과 경제 수탈, 726~742쪽)

(2019년 필기노트, 식민 통치 체제의 구축, 141~144쪽)

13. 다음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일부이다. ㉠, ㉡에 해당하는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에서 천명된 ㉡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중략)…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

- | | |
|-----------------|-------------|
| ① 7·7 선언 | 남북 공동변영 원칙 |
| ② 6·15 남북 공동 선언 | 대북 화해협력 정책 |
| ③ 7·4 남북 공동 성명 | 조국 통일 3대 원칙 |
| ④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 3단계 통일 구상 |

13. 남북 기본 합의서

정답 : ③

자료는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체결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 합의서)의 일부이다. ③ '남북 기본 합의서'에 따르면 남과 북은 '7·4 남북 공동 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의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오답분석 : ① 7·7 선언은 1988년에 발표된 선언으로 여기서 남북은 공동 변영을 추구하는 민족 공동체임을 천명하였다. ② 6·15 남북 공동 선언은 2000년 김대중 정부 때 발표된 선언으로, 개성 공단 설치 등과 같은 대북 화해 협력 정책에 합의하였다. ④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1989년에 발표된 방안으로,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을 바탕으로 남북 연합의 중간 단계를 설정하고 민주 공화제의 통일 국가를 이루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9년 해법국사 2권, 남북 대화의 진전과 평화통일의 과제, 914쪽)

(2019년 필기노트, 통일 정책과 북한의 변화, 172~173쪽)

14. 고려 후기 권문세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음서는 이들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였다.
② 재지주로서 녹과전과 녹봉을 유력한 경제적 기반으로 삼았다.
③ 첨의부 등의 고위 관직을 독점하면서 도당의 구성원으로서 권력을 장악하였다.
④ 왕실 또는 자기들 상호 간에 중첩되는 혼인을 맺어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박문각 공무원 학원

정답 : ②

② 고려 후기 권문세족은 토지 소유지에 직접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재지지주가 아니다. 권문세족들은 주로 넓은 영토를 소유하면서 소유지(농장)에는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대리인을 따로 보내 토지를 관리하는 부재지주들이었다. 또한 이들은 녹과전이나 녹봉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권 또는 수조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에서 나오는 조세 수입을 유력한 경제적 기반으로 삼았다.

오답분석 : ① 고려 후기에도 음서 제도가 존속했으며, 권문세족은 음서를 바탕으로 가문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③ 권문세족은 첨의부와 같은 고관직을 독점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당에 참여하면서 권력을 장악했다. ④ 권문세족들은 권력의 유지를 위해 왕실 또는 같은 권문세족들끼리 혼인을 맺기도 하였다.

(2019년 해법국사 1권, 전시과의 붕괴, 250쪽 / 고려 귀족, 261쪽)

(2019년 필기노트 전시과의 붕괴, 53쪽 / 고려의 사회, 56~57쪽)

15.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린 국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국가에 반역한 큰 도적인 임궽정 등이 이제 모두 잡혀 내
마음이 매우 기쁘다. 토포사 남치근, 군관 박순수·홍인성
및 전 사복(司僕) 윤임에게 각각 한 자급씩을 더해 주고,
종사관 한홍제와 박호원에게는 각각 말을 내려 주라.

- ① 불교의 선교 양종을 부활하고 선과를 다시 설치하였다.
- ② 현직 판료에게만 과전을 지급하는 직전제를 도입하였다.
- ③ 현량과 시행을 통해서 유교의 이상 정치를 실현하려고 하였다.
- ④ 기축옥사(己丑獄事)를 계기로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리었다.

정답 : ①

자료에서 ‘큰 도적인 임궽정’ 등의 표현이 등장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해당 국왕이 명종임을 알 수 있다. ① 명종은 불교의 선·교 양종을 부활시키고 선과(승과)를 다시 설치하여 일시적인 불교 진흥책을 추진하였다.

오답분석 : ② 세조, ③ 중종, ④ 선조 때의 역사적 사실이다.
(2019년 해법기사 1권, 세조, 331쪽 / 사람의 정치적 성장과 사회, 349쪽 / 선조, 351쪽 / 조선의 불교, 434쪽)
(2019년 필기노트 사람의 대두와 봉당의 성장, 72쪽 / 17세기 정치의 전개, 74쪽)

16. 양명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명종 대에 처음 전래되어 이황에 의해 이단으로 비판받았다.
- ㉡. 수용 초기 양명학자들은 성리학을 배척하여 양립할 수 없었다.
- ㉢.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과 정인보의 조선학 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
- ㉣. 정권에서 소외된 소론과 왕가의 종친 그리고 서얼 출신 인사들 사이에서 가학(家學)으로 이어지면서 퍼졌다.

- ① $\neg$, $\perp$
② $\neg$, $\exists$
③ $\perp$, $\sqsubset$
④ $\sqsubset$, $\exists$

정답 : ④

㉔ 양명학은 조선 후기에 연구된 이후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에 박은식과 정인보 등에게 계승되어 이들의 사상에 영향을 끼쳤다.

㉔ 양명학은 주로 정권에서 소외된 소론 및 종친 등의 특정 가문을 중심으로 연구되는 가학(家學)의 형태로 전래되었다.

오답분석 : ㉠ 양명학은 16세기 조선 중종 때 처음으로 전래되었다. ㉡ 수용 초기, 일부 성리학자들 중에서 양명학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양명학을 추가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019년 해법국사 1권, 양명학의 수용, 532~533쪽)

(2019년 필기노트, 양명학, 109쪽)

17. 다음의 정부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상태가 매우 좋은 갑종 백동화는 개당 2전 5리의 가격으로 새 돈으로 바꾸어 주고, 상태가 좋지 않은 을종 백동화는 개당 1전의 가격으로 정부에서 사들이며, 팔기를 원치 않는 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절단하여 돌려준다. 다만 모양과 길이 조잡하여 화폐로 인정하기 어려운 병종 백동화는 사들이지 않는다.

- 『탁지부령』 -

< 보 기 >

- ㄱ. 한·일 신탁약을 계기로 추진되었다.
- ㄴ. 은화를 발행하여 본위화로 삼고자 하였다.
- ㄷ. 제일 은행권을 교환용 화폐로 사용하였다.
- ㄹ. 필요한 자금을 대느라 거액의 국채가 발생하였다.

- ① $\neg$, $\perp$
② $\neg$, $\exists$
③ $\perp$, $\sqsubset$
④ $\sqsubset$, $\exists$

정답 : ④

제시된 자료는 1905년에 시행된 화폐 정리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화폐 정리 사업에 따라 일본의 제일 은행권을 본위 화폐로 삼아 화폐 교환을 추진하였다. ㉡ 일본은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일본의 차관 도입을 강요하도록 하면서 조서는 막대한 국채를 떠안게 되었다.

오답분석 : ㉠ 한일 신탁약은 1907년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시기 상 맞지 않는 설명이다. ㉡ 화폐 정리 사업에 따라서 은본위가 아니라 금본위 화폐제도가 성립되었다.

(2019년 해법국사 2권, 화폐 정리 사업, 684쪽)

(2019년 필기노트, 일본의 금융재정 지배, 135쪽)

18. 1930년대 전개된 항일 독립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한국 독립군이 쌍성포 전투에 참전하였다.
- ② 조선 의용대 화북 지대가 조선 의용군으로 재편되었다.
- ③ 의열단, 조선 혁명당 등이 결집하여 민족 혁명당을 창당하였다.
- ④ 양세봉이 이끄는 조선 혁명군이 흥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물리쳤다.

18. 1930년대 무장 독립 투쟁

정답 : ②

② 조선 의용대 화북 지대가 조선 독립 동맹의 예하 부대인 조선 의용군으로 개편된 것은 1942년의 일로, 시기상 맞지 않다.

오답분석 : ①④ 조선 혁명군과 한국 독립군은 1930년대 초반에 만주를 중심으로 활약하였다. ③ 의열단, 조선 혁명당, 한국 독립당 등 여러 단체들이 결성하여 난징에서 1935년에 민족 혁명당을 창당하였다.

(2019년 해법국사 2권, 1930-40년대 무장 독립 투쟁, 784~789쪽)

(2019년 필기노트, 한중 연합 작전, 154쪽)

19.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일로 옳은 것은?

왕의 국서에 이르기를 “열국(列國)을 거느리고 여러 번(蕃)을 총괄하면서, 고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유풍을 지니고 있습니다. 너무 멀어 길이 막히고 바다 역시 아득하여 소식이 통하지 않고 길흉을 물음이 끊어졌는데, 우호를 맺고 옛날의 예에 맞추어 사신을 보내어 이웃을 찾는 것이 오늘에야 비롯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였다.

- ① 당과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돌궐과 손을 잡았다.
- ② 당으로부터 발해군왕의 책봉호를 처음으로 받았다.
- ③ 당에서 안녹산의 난이 일어나자 중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하였다.
- ④ 요동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5경 15부 62주의 행정 구역을 완비하였다.

19. 발해 무왕

정답 : ①

자료는 발해 무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 중 일부이다. 따라서 밑줄 친 ‘왕’은 발해 무왕이다. ① 발해 무왕은 당과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돌궐, 일본 등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오답분석 : ② 고왕 대조영, ③ 문왕, ④ 선왕에 대한 설명이다.

(2019년 해법국사 1권, 발해, 104~106쪽)

(2019년 필기노트, 발해의 건국과 발전, 25쪽)

20. 다음 선언문을 발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본 위원회는 우리 민족을 진정한 민주주의적 정권으로 재조직하기 위한 새 국가건설의 준비기관인 동시에 모든 진보적 민주주의적 세력을 집결하기 위하여 각층 각계에 완전히 개방된 통일기관이요, 결코 혼잡된 협동기관은 아니다.

- ① 각지에 치안대를 설치하였다.
- ②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다.
- ③ 임정 지지를 주장하면서 한국 민주당에 참가하였다.
- ④ 친일청산 등을 명시한 좌우 합작 7원칙을 결정하였다.

20.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정답 : ①

자료의 내용은 1945년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약칭 건준위)가 발표한 선언문의 일부이다. ① 건준위는 전국 각지에 치안대를 설치하여 각 지역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였다.

오답분석 : ②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제헌 국회에서 1948년에 제정되었다. ③ 임정 지지를 주장하면서 한국 민주당에 참가한 인물은 송진우·김성수 등이 있다. 송진우·김성수 등은 건준위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선지는 건준위와는 관련이 없다. ④ 1946년 7월에 결성된 좌·우 합작 위원회에 대한 설명이다.

(2019년 해법국사 2권, 해방 이후 남한의 정세, 849쪽 / 좌우 합작 운동, 853쪽)

(2019년 필기노트, 대한민국 수립과정, 162~163쪽)